

1209(금) 디도서 1-3장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

디도는 바울에게 매우 신뢰받던 인물이었습니다.
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미묘하고 불편한 상황에 있었을 때,
자신의 진심과 편지를 전할 이로 택한 것이 디도였습니다.
바울은 헌금에 관한 일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.

(고후8:6,16-17,23,12:18)

디도는 예루살렘 여행, 고린도와 관련해 언급되며,
바울이 그레데 지역을 떠났을 때 그곳에 남아서
성도들을 돕고 권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(1:5).

(갈2:1-3, 고후2:12-13, 7:5-7)

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내용면에서 유사합니다.
하나님의 약속인 <영생>에 관한 말씀을 시작으로(1:1-4),
감독과 장로들이 지녀야 할 덕목과 태도들(1:5-9),
거짓 선생의 정체와 경계/책망에 대한 권고(1:10-16),
성도의 모범적인 신앙과 삶을 다룹니다(2-3장).

성도들은 <그 날>을 소망하며 <오늘>을 살아갑니다.
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생명을 맛보게 된 우리는
마침내 드러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(1:2).
천국의 덕은 이 땅의 윤리, 덕스러움과 별개가 아닙니다.
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삶, 경건한 삶을 훈련하며
신앙공동체와 세상 모두에 덕을 끼쳐야 합니다.

(1:6-8, 2:1-6, 9-10, 12, 3:10-17, 4:1-4)

나는 덕스러운 성도와 시민으로 살아갑니까?

- ❶ 의로운 삶,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있습니까?
- ❷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디도서 1-3장

업로드 자료 ❶ <BIBLE PROJECT 성경개관> [디도서 개요 Titus - YouTube](#)